

20대 청년들의 이유있는 '탈 제주'

신규 일자리 부족... 지난해 20대 1178명 순유출도 취업정책사업 '청년맞춤형 지원' 목소리 비등

제주도가 매년 수십 개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취직을 위해 도외로 빠져나가는 청년들은 해마다 늘면서 실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거나 청년 수요에 맞춘 일자리 정책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는 5개 정책분야에서 88개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한다. 그중 일자리 분야에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 올해 10가

지 사업을 벌인다.

도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업자수 669명 목표, 이중 310명 신규 취업자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들이 기존 채용 인력에 대한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다, 올해 일몰사업으로 종료되는 사업인 탓에 실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에 따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2018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된 사업으

로,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인건비·컨설팅 등을 지원해 고용상황을 유지하게끔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 시작 당시 행안부는 2021년을 사업 일몰 시기로 잡았다.

현재 행안부는 올해까지 해당 사업들을 일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게다가 해당 사업들이 올해 일몰 예정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예산도 배정되지 않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올 상반기까지 해당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이라며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사업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대에서 1178명이 순유출돼 학업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들의 현주소가 통계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20대는 제주 순이동인구가 1만명이 넘었던 2017년만 해도 978명이 순유입됐지만 2018년에는 145명이 순유출됐고, 지난해에는 규모를 더욱 키우며 3년 연속 순유출이 발생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사회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해외·도의 연계 청년정책사업 취소, 청년 활동분야 축소 등으로 지난해 청년정책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며 "비대면·온라인 사회로의 빠른 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청년정책사업 추진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코로나19 신규확진 사흘만에 '0명'

23일 기준 617명 유지

코로나19 소규모 감염이 이어지던 제주지역에서 사흘만에 확진자 발생이 멈췄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하루 동안 659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벌인 결과 신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23일 오후 5시 기준으로도 추가 확진자가 발

생하지 않았다.

이로써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617명을 유지하고 있다. 도내에선 이달 들어 47명, 올해 들어 19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다.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14명(3월 15~21일 8명)이 발생했다.

이날 기준 제주도내 격리중인 확진자는 19명, 격리해제 확진자는 597명, 사망자 1명이다. 강다혜기자

여중생 숨진채 발견... 50대 父 극단적 선택

제주에서 여중생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50대 아버지는 다른 장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이다.

2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연동1동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A양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양의 아버지 B(50대)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에 나섰다

만, 같은날 오후 7시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창고에 숨진 채 발견됐다. 창고에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특정할 계획"이라며 "만약 B씨의 단독 범행으로 밝혀질 경우 A씨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대학 신입생 노린 교육서비스 판매 주의"

소비자상담 3월에 많아

신학기를 맞아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교육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매년 신학기 기간 도내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불법 교육서비스 및 교재 판매, 학원 등록 강요 등의 피해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보면 ▷법적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대학 신입생)와

의 계약 ▷무료체험 기간 종료 후 동의 없는 계약 체결 및 일방적 대금 청구 ▷교수추천 교재라는 거짓·과장으로 인한 구입 유도 ▷계약 해지 거부 ▷단순 설문지나 인적사항 기재된 것을 계약서 작성으로 보고 대금 청구 ▷판매 시 판매원의 직급 포장 개봉 후 반품거부 등이다.

지난해 제주지역 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건수 총 117건 중 12%(14건)는 3월에 접수됐다. 여름방학 기간인 7월(15%·18건)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강다혜기자

도-롯데관광개발 '유착 의혹' 제주참여환경연대 감사 청구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과 제주도의 유착 의혹에 대해 감사 청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롯데관광개발과 제주도 관광국 카지노정책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롯데관광개발이 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따랐다는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은 사업자가 도민 의견조사를 시작한 2020년 3월 21일로부터 사흘 후에 제정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송은범기자



올해 첫 전국학력평가 2021년 첫 고등학교 전국학력평가가 실시된 23일 제주시 중앙여고에서 1학년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이상국기자

휴업직원 불러 "일해~"... 유령 직원도

고용유지지원금 '꿀꺽'한 업체 16곳 적발도, 4억여원 환수조치하고 7곳 수사의뢰

휴업일인 직원을 회사로 불러내 일을 시키거나 가짜로 직원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제주지역 업체 16곳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업체 점검을 통해 도내 16

개 업체를 적발, 이중 7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여행, 숙박업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업체가 휴업이나 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피해가 컸던 관광, 운수업계에서 부정 수급 사례가 많았다.

제주도는 조사과정에서 부정수급을 인정한 업체 8곳에 대해서는 환수 및 지급 제한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1곳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체 환수 금액은 4억6800만원이다.

부정 수급한 이들 업체 대부분은 휴업 신고를 한 뒤 휴업하지 않고 직원을 출근시켰음에도 지원금을 받아

냈으며, 그 외 피보혐자를 허위로 고용해 지원금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건수는 2019년 8건에서 지난해 6215건으로 폭증했다. 올해엔 2월 기준 766건이 지급됐다.

고용 지원 인원도 2019년 40명에서 지난해 4만9937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2월까지도 9206명의 고용유지가 지원됐다. 지원 액수도 2019년 3500만원에서 지난해 656억9000만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올해 2월까지도 112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됐다.

강다혜기자

바다에 빠진 여성 구한 '시보순경'

23일 오전 익사사고 접수 '레스튜브' 이용 뛰어들어 여성과 고양이가 두마리 구조

바다에 빠진 40대 여성과 고양이가 두 마리가 시보 순경에 의해 무사 기 구조됐다.

23일 오전 6시27분쯤 제주시 탐동 라마다호텔 앞 해상에서 여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제주

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파출소 김재은(28) 순경은 레스튜브를 이용해 입수, 신고 6분만에 40대 여성 A씨를 구조했다. 또 A씨가 품에 안고 있던 가장도 인양됐는데, 안에는 고양이가 두 마리가 있었다. 김 순경은 지난해 6월 15일 해경에 임용됐다.

한편 제주해경은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송은범기자

그랜드 보청기

2021히트브랜드대상 품목이 특가할인!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2021 히트브랜드 대상 1위
THE HIT BRAND AWARD 1ST PLACE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샅샅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중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O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한리일보 서사리 사거리 동쪽 100m 구)행복빌딩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제주대 CGV 광안사거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안사거리)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히트메감 · 윈터프린스 - 연내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과일생산의 새로운 강자!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 가온식 10월~11월 수확가능
황금향대조품종(검질이 쉽게 벗겨진다.)
- (FTA)기금 우량 품종 경선사업 (감귤원 원지 경비사업)보조품종

히트메감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대조품종 - 제라온(레몬), 탐나는봉(한라봉), 사라향(천혜향)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리조생, 공천, 흥진 카라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봉, 금귤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문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리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리조생 1,2,3년생
감귤 1,3,4년생
봉자묘목 1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